



인니 진출 韓기업들 “당국에 한 목소리 내자”...
'팀 코리아' 결성
재인니상의 중심으로 플랫폼 결성...
정보 공유 · 규제당국 공동 대응

MONTHLY KOFA

코파의

정음

Ruko Pinangsia Block B No.25, Tangerang, Jl. Boulevard Jend. Sudirman, RT.001/RW.009,
Panunggan Bar., Kec. Cibodas, Kota Tangerang, Banten 15138, Indonesia
Tel. 0856 9113 2325,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Vol. **116**
2024/05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KOFA 재인니한국신발협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인니 수입 규제로 인한 국내외 기업들의 우려... 재고부족과 생산중단 위기



▲ 북부자카르타 탄중 빠리옥 자카르타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입 제한 조치로 인해 공급망이 흔들리고 자동차 및 전자 산업의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기업들은 재고 부족과 일시적인 생산 중단을 경고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지난 9일 전했다.

18개 부문에 걸쳐 2,400개의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코드로 분류된 완제품과 중간재 및 원자재에 영향을 미치는 이번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경보가 울렸고, 상공회의소는 재평가를 요청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사무총장 리디아 러디는 지난 4일 “불법 수입을 차단하려는 이 규정의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훨씬 더 실행 가능한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 며 이 정책이 많은 분야에 적용되지만 특히 섬유와 신발, 전자제품, 건강 보조식품, 화장품, 타이어 분야의 많은 외국 기업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적절한 국내 대체품이 없는 수입 제품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일부 Am-Cham 회원사들은 필요한 수입을 하지 못하고 허가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가 지속되면 “투자 의욕을 꺾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무역부 규정 36/2023호, 3/2024호 및 산업부 규정 6/2024호에 근거한 새로운 규정이 불법 수입을 줄이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

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 연결된 많은 기업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외국 재계 관계자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수입 쿼터의 대폭 삭감, 허가 발급 지연, 번거로운 허가 시스템 등을 이유로 새로운 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수입제한으로 인한 생산 중단과 수출 중단으로 잠재적 손실이 수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도 이 문제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블룸버그는 5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네시아의 애플 맥북 공급이 4월 말까지 고갈될 수 있으며, 유럽에서 선적되는 미쉐린 타이어와 화학 물질을 포함한 다른 상품들도 앞으로 몇 달 안에 비슷한 고갈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강현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 회장은 현지 산업 성장에 따른 수입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수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규정으로 인한 거부 및 운송 관련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2월 이후 수입 승인 요청을 자제해 왔다고 지적했다. 3월에 긴급하게 수입 승인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아직 수입 승인을 받

지 못했다.

이강현 회장은 “몇몇 업체는 이번 달 재고 부족으로 생산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했다” 며 수입 허가 신청 시스템이 지연되면서 재정적 손실과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의 도나 프리아디 사무총장은 이 규정이 “산업 부문의 준비 상태” 와는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시행되었다며 준비 부족으로 인해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다운스트림 산업과 낙후되고 실행 가능한 국내 대안을 제공할 수 없는 업스트림 부문에 문제가 발생하여 더 높은 비용으로 자재를 조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영국상공회의소(BritCham)의 크리스 렌 회장은 충분한 평가와 단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시간 없이 정책을

‘서둘러’ 시행한 결과 “심각한 공급망 부족과 상업적 영향” 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 관리들은 수입 허가를 보류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부디 산토소 무역부 대외무역국장은 지난 5일, 정부는 전자제품을 포함한 수입 허가를 보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산업부 대변인 롱골라웨 사후리는 다른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산업용 원자재에 대한 기술 규정이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산업도 타격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신타 깐다니 회장은 지난 5일, 무역부 규정에 따른 수입 제한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약 70%에 적용됨에 따라 여러 하위 부문에 걸쳐 국내 제조업체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승인이 나기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타는 Apindo가 특히 수출지향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수입 수요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이 체계적으

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개혁센터(CORE)의 모하마드 파이살 센터장은 정부가 규제의 효과를 계산할 때 현지 산업을 강화하기보다는 쇠퇴를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계산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파이살은 장기간의 중단이 투자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매력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가 강력한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중요한 이점이라는 것이다.

아세안 사무국이 발표한 2023년 아세안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2년 수치 기준으로 역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2위 자리를 유지했으며, 제조업이 FDI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화승, 인도네시아 신발 공장 1만 5000명 채용 시작... 빠디 바탕간 신발 공장,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주)화승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빠디의 바탕간 부미물요 마을에 위치한 신발 공장에서 최대 1만5000명의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공장은 필수 부서로 조립, 재단, 재봉, 컴퓨터 재봉, 품질 관리 등이 있으며, 이번 채용은 2024년 3월에 시작됐다.

첫 단계에서는 50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이는 회사의 전체 계획인 15,000명의 근로자 채용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 회사는 최대 15,000명의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물함을 단계적으로 개설했고 있다.

근로자들에게는 지역 최저임금, 초과 근무 수당, 교통비, 점심 식사, 사회보장 등의 혜택이 제공된



다. 이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화승 인도네시아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러한 혜택은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또한 화승 인도네시아가 지역 사회와 그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그들의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다.

화승 인도네시아는 화승그룹의 계열사로, 아디다스 ODM (제조업자 개발생산 방식) 사업을 전

개하고 있다. 아디다스 운동화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지난 1월 중부 자바 지역에 투자해 생산 라인 증설에 나선다는 계획도 세웠다.

화승엔터프라이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아디다스 스포츠화를 생산하는 신발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다. 아디다스 공급사 가운데 2위에 해당하는 규모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화승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 빠디 바탕간 신발 공장 1만 5000명 채용은 회사의 확장 계획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이코노믹

HKI
PT. HANJIN
KONSTRUKSI INDONESIA

HJJ
PT. 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www.hanjinpower.com

Jl. Raya Serang – Jakarta KM. 80, Kel. Kaserangan, Kec. Ciruas –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루피아 약세에 고유가, 인도네시아 제조업 타격



미국 달러 대비 루피아화 환율 약세와 유가 급등으로 현지 산업의 투입 비용이 높아지면서 인도네시아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18일 전했다. 루피아화는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의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틀 피트리 연휴가 시작될 때 달러당 16,000루피아를 돌파한 후 지난 16일 이후 달러당 16,200 루피아에서 16,300루피아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됐다. 한편, 국제 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지난주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17일에 3% 하락한 배럴당 87.29달러로 마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여전히 배럴당 9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PI)의 제미 까르띠와 회장은 지난 18일 루피아화 폭락이 수출 시장 위축과 외국 상품의 유입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섬유 산업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식음료 생산자 협회(Gapmmi)의 아디 루끄만 회장은 18일, 환율과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및 물류 비용이 상승했고, 이는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업계가 대부분의 원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디는 “식음료 포장용 플라스틱 펠릿과 같은 일부 원자재 가격은 이미 인상됐고 곡물, 육류, 우유 등이 이미 인상된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아디는 루피아 환율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발생한 생산 비용 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특정 비용을 절감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Apindo)의 신따 깐다니 회장은 루피아화 약세가 장기화되면 간접비가 상승하여 제조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지난 18일, 전체 수입의 70%가 원자재와 부자재, 10%가 자본재이기 때문에 제조업은 특히 수입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신따는 루피아 약세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시장에서 판매 가격이 상승해 물가 상승, 판매 둔화, 소비자 지출 증가율 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정부가 환율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국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중동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상승과 루피아화 가치 하락으로부터 산업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내 산업의 공급 차질을 완화하기 위해 산유국 공급에 의존하는 나프타와 같은 중동산 원자재 수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스미따 산업부 장관도 18일 성명에서 원자재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부 수입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또한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네

시아 및 아시아 내 파트너 국가의 비즈니스 주체들이 수행하는 양자 간 거래에 현지 통화 사용을 늘릴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루피아 환율을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아시아 국가 간의 무역 잠재력이 커졌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C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수무알은 18일, 루피아화 약세와 고유가 모두 중동 분쟁이 완화되면서 현재 “조정”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당분간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목표치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데이비드는 기업들이 여전히 미국 달러로 거래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무역 파트너들과 현지 통화 사용을 늘리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SBC 인도네시아의 시장 및 증권 서비스 책임자 알리스 피아완은 18일 성명에서, 4월에 시작되는 계절적 배당금 유출 시즌이 끝나면 7월 이후 루피아가 숨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관리 가능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예상 금리 인하 사이클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나온 전망이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예상대로 하락하고 투자자들이 차기 정부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게 된다면 올해 말 루피아는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대어급 중국 섬유회사, 인도네시아에 투자 추진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나이키 운동화. /연합뉴스

나이키 등 글로벌 브랜드의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중국 대기업이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셉띠안 하리오 차관은 글로벌 브랜드인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유니클로 등 스포츠화 및 의류 브랜드에 납품하는 중국 섬유 제조업체가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루훗 뽀자히만 해양투자조정부 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희망하는 이 중국 대기업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중국의 아이폰 제조사가 폭스콘이라면, 이 중국 회사는 나이키와 아디다스에 납품하는 회사”라고 말했다. 라마단 기간에 중국 현지 공장을 둘러본 셉띠안 차관은 이어 잠재적인 투자회사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중국 남동부 닝보에 공장을 갖고 있는 이 회사의 회장을 만났다면, 서부자바에 건설될 섬유 공장의 투자 규모는 수억 달러에 이르고 약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관은 이어 이 중국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근로자를 위한 기숙

사와 하루 세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Comtrade 자료에 따르면 HS(Harmonized System) 61 및 62의 인도네시아 섬유, 의류 및 액세서리 수출은 2022년 96억 달러에 달한 반면, 수입은 5억 8,600만 달러 규모이다.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분기에 한국은 125개 프로젝트에 총 2,9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의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자였다. 이어 대만은 27개 프로젝트에 총 1,4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했으며 인도는 1,1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인도네시아신발협회(Aprisindo)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가죽 제품 및 신발 산업은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5억 7,430만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했다. 470만 명을 고용한 인도네시아 신발업종은 2022년에 77억 4천만 달러를 수출한 반면, 수입은 10억 달러를 조금 넘었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2023년에 인도네시아의 신발 수출은 59억 달러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www.f1-logix.com

하늘길, 땅, 바닷길 그리고... F1





Leading Logistic Provider

- 4PL
- 항공, 해상운송
- 내륙운송
- 통관대행
- 물류 컨설팅
- 물류 OS
-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인니 현재, 대선불복 청원 모두 기각... 쁘라보워 대통령 당선 확정



▲ 2024년 3월 27일 자카르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후보 간자르 뿌라노워와 그의 러닝메이트 마흐푸드 MD 및 법무팀이 대선 분쟁 소송의 첫 번째 재판에 참석했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4월 22일(월) 2024 대선 결과를 무효화해 달라는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 측의 요구를 기각하면서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후계자에게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켰어야 했다는 단서를 달았다.

리드완 만슈르 재판관은 자기 분량의 판결문을 읽으며 차기 정부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대통령의 중립성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날 현재는 대선에서 패배한 아니스 바스웨단과 간자르 뿌라노워, 두 후보들의 불복 청원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당선자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 권력남용과 국가적 자원 및 조직의 불법적 동원 때문이므로 선거결과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원고측의 청원 내용에 대해 현재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아니스의 청원을 기각했다.

그와 동시에 뿌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로 인해 대통령과 그의 내각 장관들, 지자체장들이 윤

리적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논조였다.

현재는 고모부인 현재소장의 명백한 윤리위반으로 후보 자격을 얻은 기브란을 제외하고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요구한 간자르 측의 청원 역시 기각했다.

재판관들 중 살디 이스라, 아리프 히다얏, 에니 누르바닝시 등 세 명은 선거기간 중 사회부조 (Bansos) 물품을 대중에게 배포하는 등 대통령과 국가기관들이 국가 자원을 사용한 것이 윤리적 위반행위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리드완 재판관은 판결문의 자기 분량을 읽으며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라는 위치와 정당의 당원, 정치적 권리를 가진 시민이란 여러 정체성 사이에서 '딜레마'에 봉착했을 것이라면 서도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특정 후보를 정치적으로 보증하고 나선 것은 문제적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청문회에서 대선 기간 중 대통령이 배포한 사회부조 (Bansos) 패키지들의 재원에

대해 증인으로 나선 스리 불아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국가에 배정된 대통령의 운영자금으로 조달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수의견을 낸 살디 재판관은 대통령의 그러한 행동이 임기말에 자신의 프로그램들을 완수하겠다는 결기에 입각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정치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결정문이 모두 낭독된 후 소수의견을 공개하면서 정의롭고 공정한 선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현재가 논란이 된 여러 지역에서 재투표 실시를 명령했어야 한다는 소신을 분명히 남겼다.

그는 이 사건이 오는 11월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질 지방선거의 공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는 아니스와 간자르의 불복청원이 현재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뿌라보워는 차기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21-3002-9087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재외동포청,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 시작



▲ (왼쪽부터) 병무청 최산영 주무관, 법원행정처 소수준 사무관, 통역 홍소윤 연구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 법무부 이운선 사무관, 법무부 신현민 주무관, 영상은 요코하마 총영사관 [사진 재외동포청]

4월 3일 일본 지역 재외동포 대상 국적·병무·가족관계 분야 화상 설명회 개최

올해부터 화상으로 상시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방문해 대면 제공할 계획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올해부터 각 지역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월 3일 밝혔다.

동포청은 제1차 재외동포 정책 기본계획 중 '편리한 동포생활 지원' 항목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를 화상으로 상시 제공하면서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을 방문해 대면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의 첫 개시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김연식)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별관 화상회의실에서 일본의 고베, 요코하마, 히로시마 지역 재외동포를 화상으로 연결해 국적·병역·가족관계 분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리말이 서툰 동포를 위해 일본어 통역 서비스도 함께 지원했으며,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도 초청해 참관하도록 했다.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이번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 화상설명회는 통상 재외공관 창구를 통해 제공되는 민원서비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재외동포청이 직접 민원수요자인 재외동포를 만나서 관련 분야를 설명하고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일본 지역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를 시작으로 재외동포에게 더욱 친밀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02-6747-0404)를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중이며, 해당 센터를 통해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등 5개국어로 전화와 카톡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신문]

muns Kawasan Industri Rangkas Bitung by PT. Muns Cipta Bangun

최적의 산업단지 분양!

왜 멀리서 찾지?

우리가 몰랐던 이곳! ... 공항, 항만과 땅그랑 도심 가까이 저렴한 인건비, 노동인력 풍부한 지역으로 100hr 규모로 조성합니다!

1. 위치 : Rangkas Bitung, Lebak, Banten
2. 면적 : 100 hr (1,000,000 M2)
3. 공단개발지 산업용지로 지정 완료.
4. Serang-Panimbang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이 용이함. Tol Gate에서 10분거리.
5. Kabupaten Lebak 인구수 : 2020년 조사기준 약 138만명
6. 최저임금 : 2024년 기준 Rp 2,978,764 으로 BANTEN주내 최저이며, 인구가 많아 노동집약적 산업에 적합함.
7. 분양가 : Rp 800,000/M²
7.1 부가세, 취득세, 이전비용 별도
7.2 공단내 도로, 배수로 및 부지평탄작업등 기본토목공사 완료기준.
8. 시행 및 시공사 : PT. Muns Cipta Bangun

출발지	거리	소요시간
Gerbang Tol Tangerang	85 Km	1H 10M
Air Port (CGK)	103 Km	1H 30M
SCBD Jakarta	108 Km	1H 40M
Tanjung Priok Port	121 Km	2H 30M

문의처 : 081190097773 (whatsapp)
kakaoTalk ID : muns.id
Email : muns@munscb.com

Grand Serpong Mall (Great Western Resort) Lt. UG No. 6,
Jl. MH. Thamrin KM. 2.7, Kebon Nanas, Kel. Panunggangan Utara,
Kec. Pinang, Kot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143
Tlp. 021-5541747 | E-mail. muns@munscb.com, munscb33@gmail.com
www.muns.id

인니 진출 韓기업들 “당국에 한 목소리 내자”...’팀 코리아’ 결성 재인니상의 중심으로 플랫폼 결성...정보 공유·규제당국 공동 대응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코참)를 중심으로 ‘팀 코리아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은 18일 코참과 인도네시아 주재 5개 공공기관(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한국국제협력단 인도네시아 사무소, 한국수출입은행 자카르타 사무소, 한국무역보험공사 자카르타지사)과 ‘재인도네시아 한국 기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팀코리아 플랫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인도네시아 내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모으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계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인도네시아 현지 경제 동향과 각종 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나 다른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우리 기업이 어느 나라 기업보다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인도네시



▲1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내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서 재인도네시아 한국 기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팀코리아 플랫폼 업무협약식 후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4.18.

아 정부와 관계에서는 그만큼 성장에 기여하는 만큼 우리 힘을 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우리 의견이 반영되려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 이 대사는 “오늘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인도네시아 진출기

업과 동포 기업, 공공기관, 정부가 힘을 모으고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 권익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이강현 코참 회장도 “인도네시아가 세계적 투자자로 부상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에 우리 기업 요구사항이 갈수록 제대로 반영 안 되는 것 같다”며 “결국 우리가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장희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장도 “협력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을 비롯해 포스코와 LG전자, SK, LX, 대한항공 등 인도네시아 진출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협력을 다짐했다. [연합뉴스]

인니 개인수하물 해외 반입 제한 규정 결국 철회... 해당 장관령 개정기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행객들이 개인 용도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반입 제한 관련 2023년 무역부장관령 36호를 훨씬 유연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달 10일부터 시행된 해당 규정은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반입 물품들에 대한 제한을 대폭 강화해 당사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지난 16일(화) 오전 관계부처 회의를 연 경제조정장관실은 당일 성명을 통해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된 해당 장관령 중 개인물품 반입규제 부분의 조항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따라서 반입 수하물 제한규정은 2023년 무역부장관령 36조에서 삭제되고 그 대신 이전 법령인 2022년 무역부장관령 26호와 2023년 재무부장관령 143호에

따르도록 되돌려졌다. 16일 회의에서 무역부 장관은 수하물 제한 규정이 더 이상 자신의 부처 관할이 아니라 재무부 관할이 되었다고 선을 그었다. 사람들의 해외 쇼핑을 규제하는 것이 더 이상 무역부 관할이 아니라 재무부가 할 일이란 것이다. 줄키플리 장관은 “해외에서 옷 2-3벌 사는 것은 이제 여행객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고 세금은 재무부 관할”이라고 말했다. 일반 여행객들은 총 500달러 상당의 상품들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으며, 한편 인도네시아 해

▲수카르노 하타 공항 제3터미널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외이주노동자(PM)들은 연간 그 3배 금액 상당의 물품들을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무역부 장관령 36/2023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항공편으로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여행객들은 랩톱이나 태블릿, 스마트폰을 다 합쳐 두 대씩만, 신발과 의류의 경우 각각 두 켤레, 다섯 벌만 반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는 16일 경제조정장관실의 회의 결과 발표와 함께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수카르노 하타 공항 제3터미널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외이주노동자(PM)들은 연간 그 3배 금액 상당의 물품들을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무역부 장관령 36/2023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항공편으로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여행객들은 랩톱이나 태블릿, 스마트폰을 다 합쳐 두 대씩만, 신발과 의류의 경우 각각 두 켤레, 다섯 벌만 반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는 16일 경제조정장관실의 회의 결과 발표와 함께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KOFA 광고를 제안합니다.

KOFA에서는 소식을 통해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신발업체, 부품업체, 및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코파소식지(월간)
특 징

- 1) 소식지는 KOFA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 관련 회사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 2) 전달 하고자하는 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2, 광고 상품안내

- 1) 연간(12회) 계약 혜택 : 2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 2) 6개월(6회) 계약시 혜택 : 1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KOFA 사무국 : 021-3002-9091 (mr. kang) 0821 1122 8827



PRIME SPA AND HEALTH CARE CLUB

산소(O₂)같은 사우나!

쾌적함과 청결함은 사우나의 기본입니다.
PRIME SPA 는기분을 잘 지키는 상쾌한 휴식공간입니다.
또한 사우나와 헬스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재충전 및 휴식공간입니다.



Karawaci Lippo Maxbox Mall, Jl. Boulevard Jend. Sudirman No. 1110, Bencongan, Kec. Kel. Dua, Kab. Tangerang, Banten 15810
Tel. 021 3893-4005 WA. +62 8224-900-3560
E-mail. primespa001@gmail.com



“한국기업, 인니 산업 구조와 지역 변화에 큰 영향 미쳐”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발행인 / 한인뉴스 논설위원

2023년은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이었다. 올해 2024년은 또다른 50년 즉 100년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 해이다. 1960년대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현재 사상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원목생산을 위해 코데코(KODECO, 당시 한국남방개발)를 통한 과감한 해외투자를 감행한다. 이후 50여년이 지난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산업구조와 지역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데코 투자 이후 코린도(KORINDO)를 비롯해 많은 한국 목재회사들이 현지에서 투자가 이어진다. 이 가운데 코린도는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대의 요구에 맞춰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특히 코린도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발맞춰 성장해온 대표적인 한상기업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행하고 있을 때,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이후 정권을 잡은 수하르토 대통령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969년 4월 1일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기간마다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국가산업을 고도화해왔다. 이러한 현지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맞춰 코린도그룹은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며 사세를 확장했다. 인도네시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Repelita I, 1969~1974년)에서 수하르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국내외 투자 촉진을 도모했고, 연평균 7%의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이 기간에 한국 기업들이 원목을 비롯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시기였다. 코데코와 코린도 등 한국 원목개발회사들의 투자가 몰렸고 한국 내 합판산업은 전성기를 구가했다. 당시 한국 기업은 칼리만탄과 수마트라 등 오지 밀림에서 과감하게 사업을 펼쳤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Repelita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 중인 아이오닉5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생산되고 있다. [현대차 제공]

II, 1974~1979년)에서 수하르토 정부는 국민생활 수준 향상과 개발 성과의 공정분배 및 고용기회의 확대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외자 봉쇄 조치, 합작투자 및 직접 투자 규제에 대한 우선 분야 설정, 신용 규제를 통한 토착 자본을 보호한다는 정책을 펼쳤고, 이 기간 연평균 6.8%의 성장을 달성했다. 수하르토 정부는 원목 수출 규제정책을 진행함에 따라 코데코와 코린도는 현지에서 합판공장을 설립했다. 또 한국의 건설사가 현지에서 고속도로와 플랜트 건설을 주도하는 등 현지 진출이 러시를 이루었으며 주로 자바섬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펼치면서 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앞서 10년 간 경제 기반을 다진 인도네시아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Repelita III, 1979~1984년)에서 공업화 기반 확충을 추진했다. 자원개발을 강화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이주정책을 강도 높게 진행한다. 이 기간 약 7.9%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실현한다. 1980년 코린도는 합판을 중동에 수출하기 시작했고 1983년 포르말린과 접착제 공장을 설립해 생산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Repelita IV, 1984~1989년) 기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의 균등분배, 경제 성장 활성화 및 국가 안보의 강화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추진한다. 수하르토 정부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비(非)석유가스산업 부문 보다는 노동집약

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둔다. 또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본집약 산업과 수출지향산업에 해외 투자를 권장한다. 이 기간 코린도는 제지공장 및 스포츠화 제조업을 가동한다.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Repelita V, 1989~1994년) 기간에는 경제 발전 및 부의 균등 분배, 고도 경제성장, 건전하고 역동적인 안정 국가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민간 주도의 성장을 권장한다. 이 기간 코린도는 금융사업부, 배터리 공장 설립, 컨테이너 생산 시작, 파푸아 원목 개발 등 개시한다. 또 우리나라 노동집약산업이 대거 인도네시아 투자가 이루어지고 LG전자와 삼성전자 및 초기 기술집약산업 등 다양한 제조업이 진출한다. 앞서 목재와 건설 산업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주로 자바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면, 이 기간에는 자카르타와 수도권 지역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Repelita VI, 1994~1998년) 기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2차 장기경제개발계획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제도약, 투자 촉진을 통한 산업 고도화를 꾀한다. 이 기간 전기·전자, 금속과 화학을 비롯해 자동차 산업 등 기술집약 산업이 진출하지만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해 차기 장기경제개발 계획은 중단된다.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 정권 이후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개혁 시대를 맞지만 극심한 혼란으로 정치·경제와 사회가 불안정한 시기가 이어졌다. 2004년 최초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수실로 밤방 유도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해 정국과 치안이 안정되고 대(對)중국 자원수출에 힘입어 연 평균 6%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시기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 2006년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다. 유도노 정부는 투자법을 크게 개정하고,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덕분에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적 호황을 누린다.

또 이 기간에 한국 기업은 중화학공업, 유통, 금융, 법무법인, 정보통신 기술(CT), 방산 및 한류와 관련된 상품과 콘텐츠 산업 등 자본과 기술집약적 산업이 진출한다. 코린도그룹은 상용차와 윈드밀 생산 등 중공업 분야에 진출한다. 이 기간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카르타를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노동집약산업이 지역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수도권 외곽 또는 중부지방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발전 및 고용창출에 기여한다.

이후 양국은 2017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시기에 양국 정부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논의를 재개해 합의를 끌어냈다. 2023년 1월부터 발효된 한-인니 CEPA는 양국의 시장을 개방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무역협정’인 FTA와 비슷한 협정이다. 하지만 CEPA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 투자 등 무역 확대에 무게를 둔 FTA에 비해 정부 간 경제 협력 및 인적·문화적 교류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의 경제협정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밸류체인(GVC, Global Value Chain, 가치사슬)이 재편되면서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자원부국이며 잠재력

이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GVC의 지각변동의 수혜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의적절한 한-인니 CEPA 발효는 양국 간 경제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KCC글라스, 롯데케미칼 등 한국 첨단산업 대기업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사업, 제약·바이오 및 한류 관련 산업 부문에서도 인도네시아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2020년 11월 고용창출법(일명 옴니버스법)을 제정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문호를 활짝 열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경제협력에서 윈윈(win-win)하려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Making Indonesia 4.0)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제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실현을 위한 로드맵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을 진행하면서, 한국 등 제조업 선진국을 통한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의 5대 육성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늘어나는 등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롯데케미칼 등 대규모 투자를 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상호 간 깊은 신뢰를 요구하는 방위산업 협력에도 긴밀하다. 방산협력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무기체계를 사용하는 나라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순차적으로 건조했다. 또한 양국은 다목적 전투기(KF-21)를 공동개발하고 있다. 최근 KF-21 분담금 연체와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기술 유출 시도 문제로 술렁거리고 있다. 2024년 인도네시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미해결된 사항이 원만히 해결돼 양국 방위산업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PT ALLJIUM GREEN NUSA

정직하고 품질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겠습니다!

— LS-AG Cable Indonesia 공식 대리점 —



저압케이블/Building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



Overhead 케이블



Busduct



HEAD OFFICE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 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0811 8126 7788 (☎)
0811 8430 561 (한국인 상담)



www.lscns.com
www.lsag.co.id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v 20-21, Wanajaya,
Telukjambé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021 3973 3988

OFFICIAL DISTRIBUTOR | 공식 대리점

PT ALLJIUM GREEN NUSA

재외선거 투표율 역대 최고라지만...동포사회 “아쉽다” 반응도

선거권자 197만명 중 14만7천명만 등록...실제 투표자는 9만2천명 우편·전자투표 도입 등 제도 개선 요구...비례대표 필요성도 주장



▲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실시된 재외선거 [사진:한인뉴스 제공]

지난 1일까지 115개국(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잇따라 실시된 제22대 총선 재외선거에서 역대 총선 최고치인 62.8%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동포사회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 62.8% 투표율이나 실제 4.7% 그쳐...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4일 동포사회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재외동포 수는 708만명, 투표가 가능한 18세 이상 재외선거권자는 197만4천375명이다. 이번 총선을 위해 등록한 유권자는 14만7천989명으로, 이 가운데 9만2천923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상 등록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투표율을 계산하면 62.8%이지만, 전체 재외선거권자로 범위를 넓히면 4.7%에 그친다.

대륙별 투표자수는 아주 4만7,647명(62.8%), 미주 2만6,341명(56.5%), 유럽 1만4,431명(73.5%), 중동 2,904명(74.0), 아프리카 1,600명(79.3%)이다.

각 지역 한인회는 동포들의 투표 참여 열기가 어느 때보다도 높았으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소개했

다. 대륙별 투표자 수가 가장 많은 아주 지역을 담당하는 아시아 한인회총연합회 측은 서로 경쟁하듯 한인회별 투표율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동포사회에서는 대사관과 한인회 등을 중심으로 한 투표 독려 운동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재외동포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한 표 행사' 왕복 1천600km 이동...동포 편의 위해 법 개정**을 푸켓에서 방콕까지 왕복 1천600km를 이동했다는 태국 동포의 투표 후기 등이 소개되면서 이들의 편의를 위해 재외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전에도 늘 제기된 문제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허준혁 유연한반도평화번영재단(유엔피스코) 사무총장은 “실제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투표하려면 여전히 재외공관이나 원거리 투표소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라며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은숙 베트남 하노이한인회장은 “베트남 한인들 사이에서 선거 열기는 뜨거웠다. 다만 200만명이나 되는 재외선거권자 중에서 실제 투표로 이어진 비율은 낮아 아쉽다”며 “재외동포들이 좀 더 편리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동포사회에서는 투표율을 높이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우편투표나 이메일 전자투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우편투표와 함께 주에 따라 팩스, 이메일, 웹페이지 투표 등을 병행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 국가도 우편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 **재외동포 대표성 문제도 제기...이번에도 여야 비례대표 없어** 동포사회에서는 각 당이 재외동포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해 비례대표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2012년 재외선거가 시작된 이후 아직 실현된 적은 없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러 인사가 비례대표를 신청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제임스 안 미국 로스앤젤레스(LA)한인회장은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도 당선 안정권 여부를 떠나 단 1명의 재외동포도 비례대표로 추천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재외동포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국내 유권자가 지역구 대표를 뽑는 것처럼 각종 동포

관련 현안 등을 대변하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서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은 “적극 참여자의 투표율은 높았겠지만, 실제 투표율은 5% 미만으로 해외에서 선거 열기가 갈수록 식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각 당에서는 진정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재외동포 비례대표를 대륙별 1명씩은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 비례대표 배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종현 전 싱가포르한인회장은 “각국 한인회는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모국 국위 선양과 공공외교를 하면 되지 한국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싱가포르한인회는 한인 사회의 분열을 염려해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니 찾은 팀 쿡, 조코위 만나 “애플 공장” 건설 검토 “인니, 애플에 매우 중요한 시장” ...발리엔 개발자 아카데미 열기로

아이폰 제조사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인도네시아를 찾아 제조시설 건설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쿡 CEO는 자카르타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면담했다.

쿡 CEO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조코 위 대통령은 애플 제조 시설이 인도네시아에 생기를 원한다고 했고, 우리는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도네시아 유명 관광지 발리에 새로운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를 열 계획이라며 “



▲ 조코위 대통령과 팀 쿡 애플 CEO가 회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 사무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여력은 무궁무진하며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현재 베트남에 아이패드와 에어팟, 애플 워치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는 이런 제조 시설은 없고 바탐과 수라바야, 탕그랑 등 3곳에서 애플 개발자 아카

데미만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구스 구미왕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애플이 인도네시아에 제조 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하면 수출용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설령 공장을 짓지 않더라도 부품 조달에서 인도네시아 기업과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갈등 구도 속에서 애플은 제조·공급망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 등에서 생산을 늘리고 있다. 쿡 CEO는 인도네시아 방문 직전 베트남에서는 팜 민 쯐 베트남 총리와 만나 베트남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틈스목금형(틈스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 생산성 향상
- 짧은제작기간
- 정밀성
- 품질 향상
-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빼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틈스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틈스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틈스금형, 특수 칼금형

글로벌 스포츠 1위 다투는 나이키-아디다스의 정반대 실적... 무엇이 희비 갈랐나

세계 1, 2위를 다투는 스포츠 업체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상반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아디다스는 위기에서 벗어나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웃돈 반면 나이키는 브랜드 설립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기대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아디다스는 지난달 2023년 실적 발표에서 5800만 유로(약 835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암울한 실적을 내놓았으나, 올해 1분기 매출에서 반전을 보여줬다. 스포츠웨어 회사들은 올해 주목받고 있는 파리올림픽과 유로 24, 코파 아메리카 등 대규모 이벤트와 파트너십으로 활력을 불어넣으려 하는데, 아디다스가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지와 나이키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카니예로 타격 입은 아디다스, 악성재고 아울렛으로 적극 처분해 위기 극복

17일(현지 시각) CNBC에 따르면 아디다스는 올해 영업 이익 예상치를 당초 5억유로에서 7억유로(1조원)로 대폭 올렸다. 이날 프랑크푸르트 주식시장에서 아디다스는 주가가 8% 급등한 219유로(32만2700원)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디다스는 또 1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한 54억6000만 유로(8조원), 영업 이익 3억3600만유로(4950억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매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1억 4300만 유로의 영업 이익을 예상해왔다. 전년 동기의 영업 이

익은 6000만 유로(884억원)에 불과했다. 투자업계에서 아디다스는 악성 재고로 인해 실적 기대감이 없었다. 지난해 초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래퍼로 알려진 예전 카니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나이키 운동화. /연합뉴스

로만 7억5000만 유로(약 1조 165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3억 유로(약 4325억5000만원)의 순이익을 얻었다. 이 중 1억4000만 유로(약 2018억원)는 반유대주의口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



▲아디다스 로고가 새겨진 독일 축구공과 유니폼. /연합뉴스

브랜드 호각을 다투는 나이키의 주가는 2년 연속 하락 중이다. 2021년 주가가 177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 주가를 기록했던 나이키는 18일 기준 94.97달러를 기록하며 반토막이 됐다.

비판했는데, 혁신적인 신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했으며 로렌 허친슨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에게 “나이키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판매를 촉진할 만한 신제품을 내놓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혁신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지적에 존 도나호 최고경영자(CEO)는 그 원인을 직원들의 재택 근무로 꼽았다. CNBC에 따르면 도나호 CEO는 “시장에서 나이키에 바라는 신선한 제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나이키 직원들이 2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에 웨스트)와 협업한 시그니처 브랜드 ‘이지(Yeezy)’의 판매 급감 때문이다. 예는 “유대인들에 대해 ‘데스콘 3(Deathcon 3)’를 발동할 것”이라는 막말을 일삼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패션쇼에 ‘백인 목숨도 소중하다’(White Lives Matter)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등장하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과 유대인 혐오를 드러내면서 대중의 질타를 받았고 아디다스도 10년 가까이 이어오던 예와의 협업을 종료했다. 로이터통신은 아디다스와 예와의 협업이 중단되면서, 이로 인한 손해가 지난해 적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문제는 이지와 협업한 제품의 재고 처리였다. 아디다스는 결국 지난해 아울렛 매장 등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이지 제품의 재고를 저렴한 가격에 팔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이지 판매

기도 했다. 이번 호실적은 이처럼 예와의 관계를 청산한 후 이지 브랜드 재고를 적극적으로 매각해 온 결과다. 아디다스는 올해 남은 기간에 나머지 이지 재고를 판매하면 약 2억 유로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군다나 아디다스는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휩쓴 자사의 운동화 모델 ‘삼바’ 열풍을 활용해 기본 디자인에 스웨이드 등 다른 소재나 변형을 준 삼바 운동화를 내놓으면서 올해까지도 인기를 이어오고 있다. UBS는 지난해 부진했던 이지 제품의 기본 매출 성장으로 아디다스의 가속 모멘텀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비요른 굴텐 아디다스 최고경영자(CEO)도 올해 하반기에는 성장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상품 없고 혁신 없다 지적 받는 나이키, 원인은 재택근무? 반면 아디다스와 세계 스포츠

시가총액으로 보면 약 1300억달러(173조원)의 자본이 증발한 셈이다. 나이키는 보잉, 인텔 등과 함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속한 종목 중 올 1분기 가장 실적이 좋지 않았던 종목으로 꼽혔다. 나이키는 지난달 21일 실적을 발표하는 컨퍼런스 콜에서 암울한 하반기 매출 전망을 내놓았다. 매트 프렌드 나이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오는 6월 시작되는 하반기(2025회계연도 상반기) 매출이 한자리수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출 감소를 미리 예고한 셈인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나이키에 2025회계연도에서 1분기 4%, 2분기 6%로 성장을 기대하고 있었다. 나이키의 부진은 신제품 및 혁신 부족으로 꼽힌다. 블룸버그통신은 “나이키는 여전히 에어포스1과 같은 과거 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고

그는 줌(Zoom)을 통해 업무하고 회의하면서 대담하고 파괴적인 혁신을 개발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나이키 팀들은 반년 전부터 혁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키는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지난해 말 비용절감 프로젝트도 가동했다. 향후 3년 동안 20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총 인력의 2%, 최소 1500명 이상의 인원 감축도 발표했다. 도나호 CEO는 “나이키는 아직까지도 점유율을 지키고 있고 여전히 모든 스포츠 분야에서 지배적인 세력”이라며 “나이키가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혁신을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파인트리 재봉사




친환경 수성분도사 한국 특허획득 (NO:10-2009-0099067)
Pine tree 본드재봉사는 봉제시 풀림을 방지하며 직물과의 마찰계수를 감소시켜 원단의 Damage를 줄임으로 고속 stitching시 가장 이상적인 재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	스펙	사용용도
나이론 본드재봉사 (Nylon Filament Bonded Thread)	100D/2,3 . 210 D/2,3 280 D/3 . 420 D/1,2 840 D/3,4	신발, 가방, 장갑 (골프, 야구, 오토바이용 등)
나이론 본드 발수재봉사 (Nylon Water Proof Bonded Thread)		
모카신 재봉사 (Braid Thread)	0,8mm, 1mm, 1,2mm, 1,5mm	신발 (운동화 및 캐주얼화)
폴리에스터 코어사 (Polyester Core Sewing Thread)	29S/2, 29S/3, 45S/2, 15S/2	수영복, 장갑, 자켓
나이론 스트레치 재봉사 (Nylon Stretch Sewing Thread)	70 D/2, 100 D/2	수영복, 니트, 자켓 등 의류용 침대, 쇼파, 장갑
스판 폴리 재봉사, 발수 재봉사 (Spun Polyester Sewing Thread)	60S/2, 60S/3, 40S/2, 40S/3 30S/3, 20S/3, 20S/4	
폴리에스테르 스트레치 재봉사 (Polyester Stretch Sewing Thread)	75 D/1, 150 D/1,2,3 200 D/1, 300 D/2	장갑, 의류, 침대, 쇼파용
재전사 및 도전사 (Anti-Static, Conductivity Sewing Thread)		
방염, 난연 재봉사 (Anti Flammable Sewing Thread)		안전화 및 등산화
야광 재봉사 및 야광 자수사 (Luminous Thread)		

PT.ELBEKA S.T는 재봉사 전문 생산업체로 원사구매에서 연사, 염색, 검사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최고품질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ELBEKA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축적된 노하우, 우수한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T ELBEKA SEWING THREAD

Jl. Industri Keroncong No. 20 RT 004/RW 04, Kel. Keroncong Kec. Jatiuwung, Kota Tangerang Indonesia

Telp : (021)5931-0445,0447 Fax : (021)5931-0446 E-mail : elbekast@ymail.com
한국인 연락처 HP : 0812-8888-0899 (이봉규 사장), 0811-1830-046 (Aan Suhanah)

나이키, '비용 절감' 위해 美 본사 직원 700여 명 해고 "6월 말까지 본사 직원 740명가량 줄이기로 해"



▲연합뉴스 자료

스포츠의류업체 나이키가 비용 절감을 위해 미국 본사 직원 700여 명을 해고하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셸 애덤

스 나이키 부사장은 본사 소재지인 오리건주 당국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6월 말까지 본사 직원 740명가량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존 도나호 나이키 최

고경영자(CEO)는 향후 3년간 전 세계 직원 수는 2%(약 1600명)가량 줄여 2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를 절감하겠다고 지난해 12월 밝힌 바 있다. 앞서 나이키는 지난 2월 첫 해고를 단행했다. 매출 둔화 속에 나이키의 주가는 올해 들어 13%가량 하락했다. 19일 시간 외 거래에서도 0.14% 떨어진 상태다. 로이터통신은 스위스 현지 매체를 인용해 크레디트스위스(CS)를 합병한 UBS가 6월을 시작으로 올해 5차례에 걸쳐 해고에 나설 예정이며, 이를 통해 120억 스위스프랑(약 18조2000억 원)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경제]

영국 음악 신의 스타 뮤지션 데이브가 참여한 뉴발란스의 새로운 1000SL 캠페인 영국 유스 컬처를 담아온 유웬 스펜서 촬영



뉴발란스가 최근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한 영국 음악가 데이브가 출연한 1000SL 캠페인을 공개했다. 1000SL의 디자인 특징은 유선형 실루엣과 눈에 띄는 오버레이 패널, 분할된 조각형 밀착 유닛, 나일론 아일릿 등이다. 새로운 캠페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영국의 유스 서브컬처를 담아온 포토그래퍼 유웬

스펜서가 촬영했다. 이와 함께 뉴발란스는 스튜디오 언캐니의 엘리엇 엘더와 조지 먼시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맡은 단편 영화를 공개했다. 뉴발란스 1000SL은 영국 기준 4월 24일부터 브랜드 온라인 스토어에서 한화 약 25만 원에 판매된다.

[HYPEBEAST]

로퍼+스니커, 뉴발란스 1906L '브라운/네이비' 공개 벌써 세 번째 컬러웨이.



뉴발란스가 로퍼와 스니커를 결합한 새로운 실루엣, 1906L의 '브라운/네이비'를 출시한다. 신발은 뉴발란스의 시그니처 고사양 아웃솔을 활용했다. 어퍼는 짙은 그레이 컬러를 바탕으로 중간에 네이비 블루 메시 섹션을 더해 완성됐다. 중앙에는 뉴발란스의 'N' 로고가 각인됐다. 뉴발란스 1906L '브라운/네이비'의 출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판매
임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 문의

박 찬 Hp : 0812 9512 8990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0 No. 90,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bakchan@daum.net



포르투갈, 신발 생산량에서 스페인 추월



포르투갈은 스페인을 제치고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신발 생산국이 되었다. Eurostat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2022년에 8,500만 켈레의 신발을 생산했는데, 이는 스페인 라이벌보다 200만 켈레 더 많은 수치다. 지난 10년 동안 포르투갈의 신발 생산량은 14.4%(7,400만 켈레에서 8,100만 켈레) 증가한 반

면 스페인 산업은 14% 감소했다(9,700만 켈레에서 8,300만 켈레). 매년 포르투갈에 밀리고 있지만 이탈리아만이 더 나은 성적을 거두었다.

실제로 이탈리아 신발 산업은 2012년 이후 생산량이 18.6% 감소하여 2022년 1억 6,200만 켈레의 신발을 생산하는 등 한 발 물러났다(10년 전 1억 9,900만 켈레의 신발을 생산한 것과는 큰 차이).

포르투갈만이 유럽에서 신발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다. 유럽 생산량에서 포르투갈의 점유율은 34.3% 증가하여 현재 전체 생산량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신발 생산량은 지난 10년 동안 19.6% 감소한 4억 9,600만 켈레(2012년 6억 1,700만 켈레)를 기록했다.

“이것은 야심찬 비전을 정의하고 공공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포르투갈 신발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의 결과다. 이를 통해 해당 부문이 국제 경쟁 현장에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라고 포르투갈 협회 회장인 Lus Onofre는 말했다.

현재 이탈리아에는 6,381개의 신발 회사가 등록되어 있으며(10년 동안 25.8% 감소), 스페인에는 2,808개(2012년 이후 16.1% 감소), 포르투갈에는 2,428개(5% 감소)가 등록되어 있다. 이 세 국가는 유럽 신발 생산의 거의 70%를 차지한다.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풋마트’, 미국 슈즈 ‘스케처스’와 제휴 이마트, 인스파이어 호텔 등 출점

풋마트코리아(대표 최필구)가 전개중인 슈즈 멀티숍 ‘풋마트’가 해외 브랜드 입점을 강화하고 유통 채널도 다각적으로 확대한다.

이 회사는 올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신규 입점을 강화한다. 지난해 말 이마트 하월곡점에 80평 규모의 매장을 오픈한데 이어 최근 중동점까지 총 8개 점을 확보했다. 이어 롯데마트 군산점,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호텔에도 입점한다. 현재 50개 점을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60~70개 이상의 매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이 회사는 나이키, 뉴발란스, 아디다스, 라코스테 등 해외 브랜드 입점을 유치한데 이어 미국 신발 ‘스케처스’ 와도 제휴를 맺었다.

최근 오픈한 중동점에 ‘스케처



스’를 처음 구성, 초반부터 완판을 기록, 월평균 1억2,000만원~1억5,000만원의 매출이 기대된다. 향후 ‘풋마트’ 내 ‘스케처스’ 구성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

이외 더블스타(스니커즈), 코쿠이(감성 액티브 샌들 브랜드), 디맨(스니커즈), 아웃라이더(스포츠 아웃도어 의류) 등 4개 자사 브랜드의 경쟁력 확보에도 나선다.

올해 매출 목표는 500억 원, 내년에는 신규 출점 강화에 따라 매출 목표를 7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 일반 인버터 타입 대비 **4%** 더 에너지 절약가능한 타입
2. FYH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유성열 : 0812 8037 0303 | 한상윤 : 0822 9999 1447 | Mariono : 0812 8763 965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JEPARA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진흥센터, 업계 최초 KAS 공인 인증 수여 신발산업진흥센터, (주)트렉스타 '익스트림 GTX' 업계 최초로 'SHOE 마크 인증' 수여



▲최근 신발산업진흥센터로부터 'KAS 공인 제품인증' 을 받은 트렉스타의 '익스트림 GTX' 제품 (사진=부산경제진흥원 제공)

부산경제진흥원은 산하 신발산업진흥센터(신발센터)가 (주)트렉스타의 '익스트림 GTX' 제품에 국내 최초로 'KAS(한국제품인정기구)

공인 SHOE 마크 제품인증'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KAS 공인 제품인증기관은 국제기준(ISO/IEC 17065)에 따라 제품평가, 인증수행 능력이 있다는 것을 KAS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으로 국내 신발 분야 인증기관은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센터가 유일하다. 이번에 KAS 공인 제품인증을 받은 트렉스타의 해당 제품은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센터로부터 인증기준을 모두 통과해 국내 신발제품 가운데 최초로 해당 인증을 얻게 됐다. 트렉스타의 등산화 대표 라인으로도 알려진 이 제품은 이

번 KAS 공인 제품인증을 획득하며 제품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우수성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증받게 됐다. 성기관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은 "국내 첫 KAS 공인 SHOE 마크 제품인증 부여

를 시작으로 국내 신발 제품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신발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신발산업 활성화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KAS 공인 SHOE 마크 제품인증 서비스의 인증 획득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orea Genuine Lubricants

(윤활유)

Shell

유압작동유
열매체유
기어유
엔진오일(발전기)
기타

유인대 대표 0811 83 43 98 021 598 0222
이광선 이사 0812 1007 7732 08118411 134 (WA)
Natasha 0812 1121 1010 yusung.jayaabadi@gmail.com

PT. YUSUNG JAYA ABADI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재미있는 우리말 옛말

숯계집어르다: 장가들다(娶: 남자가 여자 위에 올라가 취한다.) 장가가는 것은 장인집에 가서 혼인하다"에서 유래했습니다.

숯남진어르다: 시집가다(여자가 결혼하여 남의 아내가 되다. 嫁: 여자가 남의 집에 들어가다)

숯겨집어리: 다른 여자와 정을 통하다 ('내로남불' 이라고 하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위의 단어를 잘 보면 '어르다' 라는 말이 '혼인하다' 처럼 보이는데, 사실을 sex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생긴 단어가 '어른' 이지요. 성적으로 성숙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을 뜻

합니다.

또한 '아름답다' 도 '어른답다' 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아이들은 '예쁘다' 고 해야 합니다.

향가에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얼어두고(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정을 통하고)' 라는 글이 있어요. 여기서 '어르다' 가 처음 나오지요.

단국대학교 한문교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 문학박사
중부대 교수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표
한국어문학회 회장
저서: 한국어문화문법의 50여권

대한민국 노통연관보일러 No.1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DMXN-Series

- 고성능 저녹스버너 탑재
- Siemens Control 채용
- 2-Damper 전자식 컨트롤로 Air, Gas의 정밀제어를 통한 최적의 연비실현

DMI-Series

- 컴팩트형 미니 노통보일러
- 협소한 공간에 최적의 보일러
- 모든 부대장비가 하나의 플랫폼상에 설치, 배선, 배관이 되어있어 현장 운반 설치가 용이

친환경

NOx 40ppm 이하

증기건도

98%이상

보일러효율

99%이상

연소제어

비례제어

컴팩트한 설계

폭 1,960-2,730mm

증기건도

98%이상

보일러효율

90%이상

연소제어

스텝제어

산업용 보일러 외길 54년!

(주) 대열보일러

DAEYEO BOILER CO., LTD.

INDONESIA AGENCY

영업 담당 : 이광선 이사

Tel. +62-021-598-0222 / +62-0812-100-77732

E-mail. salesyja@gmail.com / sunny@yusungjaya.com

본사 제조공장(서산 소재) ▶

www.dylboiler.co.kr

SUNTECH

Making AUTOMATION FACTORY

With SUNTECH's Smart technology!

PRODUCTS



ST-6040HS-C3
3-컬러 컴퓨터 패턴 재봉기



SFT-10616
코딩 자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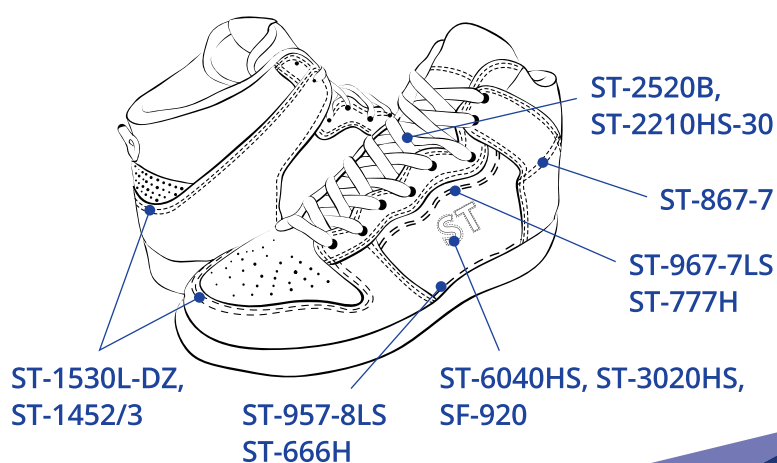


ST-666H(롤러 1본침), ST-777H(롤러 2본침)
자동 땀폭 조절이 가능한 롤러 포스트 재봉기



ST-168 Series
아리안스 재봉기

APPLICATIONS



CIKARANG OFFICE

Ruko Podium Blok A No. 1 dan 2 JL. Mataram Lippo
Cikarang Kel. Cibatu Kec. Cikarang Selatan Bekasi 17550
TEL 021-2210-4936 FAX 021-2210-4994
021-2210-4937

JEPARA OFFICE

JL. Jepara-Kudus Desa Rengging RT. 006 RW. 001,
Pecangaan Jepara
TEL 0291-752-0288 FAX 0291-752-0588

REMBANG OFFICE

JL. Panglima Sudirman No. 156 6 RT. 002 RW. 03
Kabonganlor, Rembang, Jawa Tengah
TEL 0295-698-3799